

풍산·옥천·유등초 한마음 체육대회

농산어촌 희망찾기 '어울림학교 운영사업'

2015년 05월 13일 (수)

글·사진 풍산초등학교 ☎-

지난 1일, 순창군실내체육관에서는 어울림학교(풍산, 옥천, 유등초) 한마음 체육대회 큰 잔치가 열렸다.(사진)

풍산초등학교(교장 서정만), 옥천초등학교(교장 신경숙), 유등초등학교(교장 정인자) 등 세 학교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생 150여명이 참가했다.

풍산초 서정만 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 학교의 어린이들이 같고 닮은 기쁨을 마음껏 뽐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대표 김호연(풍산초 6년) 어린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정정 당당히 경기에 임한다'는 다짐을 어린이들과 함께 선서하며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지네발 릴레이, 고래등 타기, 볼볼공 넣기, 게 줄다리기, 바지 터널, 돼지 물이 등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신나고 재미있는 새로운 경기가 펼쳐졌다. 전하니(풍산초 5년) 어린이는 "우리학교 어린이들만 하면 수가 적어서 여러 활동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세 학교 어린이들이 한 데 모여 같이 체육대회를 하니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기를 할 수 있어 너무 재미있다. 옥천, 유등초 친구들과도 서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며 즐거워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농산어촌 희망찾기 '어울림학교 운영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1년부터 5년째 풍산·옥천·유등초, 세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3개 학교 같은 학년 공동수업, 한마음 학부모교육, 수업 혁신을 위한 교직원 연수, 교과체험학습, 계절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풍산초, 향가유원지로 하이킹 다녀와

2015년 05월 13일 (수)

글·사진 풍산초등학교 8 -

풍산초등학교(교장 서정만)에서는 지난 4일 '두 바퀴로 가는 풍산초'라는 슬로건 아래 섬진강생태체험동아리에 참여하는 4~6학년 22명의 학생들이 섬진강 일대와 향가 유원지를 경유하는 하이킹 체험을 다녀왔다.(사진)

이번 체험은 풍산면 대정리의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 관찰과 향가 유원지 자연 정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에 도착하여 망원경을 꺼내들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백한비(5년) 어린이는 “백로와 왜가리 등의 새들이 소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또 아직 모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에도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2시간에 걸쳐 도착한 향가 유원지에서는 점심식사로 맛있는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점심을 먹은 후 향가 유원지 일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정화 활동 시간을 보내며 보람찬 하이킹을 마무리 하였다.

서인성 교사는 “섬진강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학생들과 함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지역 교육(애향심 교육)이 될 수 있다.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또 한 뼘 자라나고 성장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풍산초에서는 앞으로 1년간 지속적인 우리 고장 섬진강 주변의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내 고장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풍산초등학교, 혁신에 혁신을 뛰어넘다

100% 학부모 참여 학교를 꿈꾸며

2015년 05월 13일(수) 11:05 [순창신문] **정로복사**



© 순창신문

순창군 혁신학교 중 한 곳인 풍산초등학교(교장 서정만)는 그동안 학년초, 학기초에 실시하였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학급단위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말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한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전시성, 행사성에 가까운 학교 전체 단위의 교육과정 설명회 형식을 지양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한 걸음 더 다가갈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교육과정 설문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 전체 규모의 안내 및 교육과정 설명회보다는 자기 자녀에 대한 새학년 적응 및 교우관계에 대해 담임 교사와 밀도있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대부분 오후 시간에 진행되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와 실정을 적극 반영하여 풍산초등학교는 담임 교사의 주관으로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 학부모와 교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주제나 상담 내용을 가지고 밀도있는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미 80%정도의 학급이 교사의 실정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급별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쳤으며 남은 학급들도 교사의 업무도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사들의 늦은 시간까지의 만남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기존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내 아이를 1년 동안 맡아줄 담임교사의 성향이나 및 학급 운영 철학등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마련하여 참여해보니 담임의 고충도 듣게 되고 담임 교사 및 학급 운영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로 계속 이어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풍산초등학교 혁신담당 교사는 바쁘고 정신없는 학급 운영 중에 늦은 시간까지 학급교육과정 안내를 준비하고 학부모와의 만남을 운영한 담임교사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